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Vol.690

09



세상에 빛을 더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술

ART

THEME 1

예술

2025년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 가지 단어 속에 담긴 두 가지 해석에 집중합니다. 9월호의 키워드는 'Art'입니다. 여러분은 'Art'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첫 번째 테마는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다채롭게 물들이는 '예술'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THEME 2

기술

두 번째 테마는 '기술'입니다. 기술이란 삶을 바꾸는 손길이며 내일을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AI 기술을 통해 물 관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를 선도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 보세요.



예술



6. 월간 수토픽

세계 물관리 기술의
기준을 만드는 SI 정수장

10. Gallery

'예술'이라는
다정한 언어

14. Theme Road

백제 예술의 어제와 오늘을 찾아서
부여

20. Travel Guide

사람들이 모이는 예술의 집
예술창작공간

22. Voice on Road

붓끝에 담긴 평안을 바라는 마음
정규린 화공

26. The Kit

케데헌이 쏘아 올린 K-굿즈 바람
전통예술 굿즈

28. Taste Note

테이블을 예술로 만드는
마지막 터치, 식용꽃

기술



30. Theme Prism

나만의 Art를 그리다

32. Opinion

완벽한 인공지능과
인간의 불완전성

34. Talk with

영원한 댄싱퀸의 무대에서 잘 노는 기술
뮤지컬 배우 최정원

38. 수타벅스가 간다

함께 만든 10년의 변화
제주지역협력단

42. Water & Tech

정부 AI 정책과 물관리
소버린 SI를 향한 도전

46. Light on

꺼지지 않는 즐거움
'대전 0시 축제'와 함께한 한국수자원공사

48. Newsroom

52. Water Lounge

고요와 치유 물방울의 미학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56. Monthly Issue

식단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58. Water Tales

시대 속 목욕의 기억

60. #알고리즘

62. 방울사서함

K-water SNS에서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웹진



창간일 1968년 1월 | 발행일 2025년 9월 1일 | 통권 690호 |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공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세계 물관리 기술의 기준을 만드는 AI 정수장

한국수자원공사가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수질 감지와 정수 공정관리, 에너지사용량 최적 관리 등 정수장 운영에 인공지능(AI)을 융합한 ‘AI 정수장 운영기술’로 글로벌 물 시장을 선점하는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물관리 패러다임을 혁신하며 세계 물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AI 정수장 운영기술을 살펴본다.



AI가 분석해 조정·운영하는 화성정수장 약품투입동

화성정수장 전경

AI 정수장 운영기술, 국제표준화 급물살

지난 7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실증한 ‘AI 정수장 운영기술’이 ISO(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 작업초안(Working Draft)으로 공식 승인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 해당 기술의 신규과제 제안(New Work Item Proposal) 이후 7개월 만에 국제표준 제정의 핵심 관문인 작업초안 승인을 이끌어냈으며, 이르면 2026년 국제표준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AI 정수장 운영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면, ISO 174개 회원국을 포함해 AI 정수장 운영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모두 해당 국제표준을 준용해야 한다. 이로써 한국형 물관리 기술의 글로벌 확산은 물론 국내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운영하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인증(BDN, Blue Dot Network) 획득 절차에도 돌입했다. BDN 인증은 지속가능성, 복원력, 경제적 효율성, 투명성 관련 최고 기준을 충족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인증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신호를 제공해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유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AI 정수장에 대한 OECD의 공식 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르면 11월 해당 인증을 획득할 전망이다.



근무자와 AI가 함께 운영하는 미래형 정수장

AI 정수장 운영기술은 2020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스마트 물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정수장 전 공정에 접목하여 휴먼에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체계 구축과 운영 최적화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이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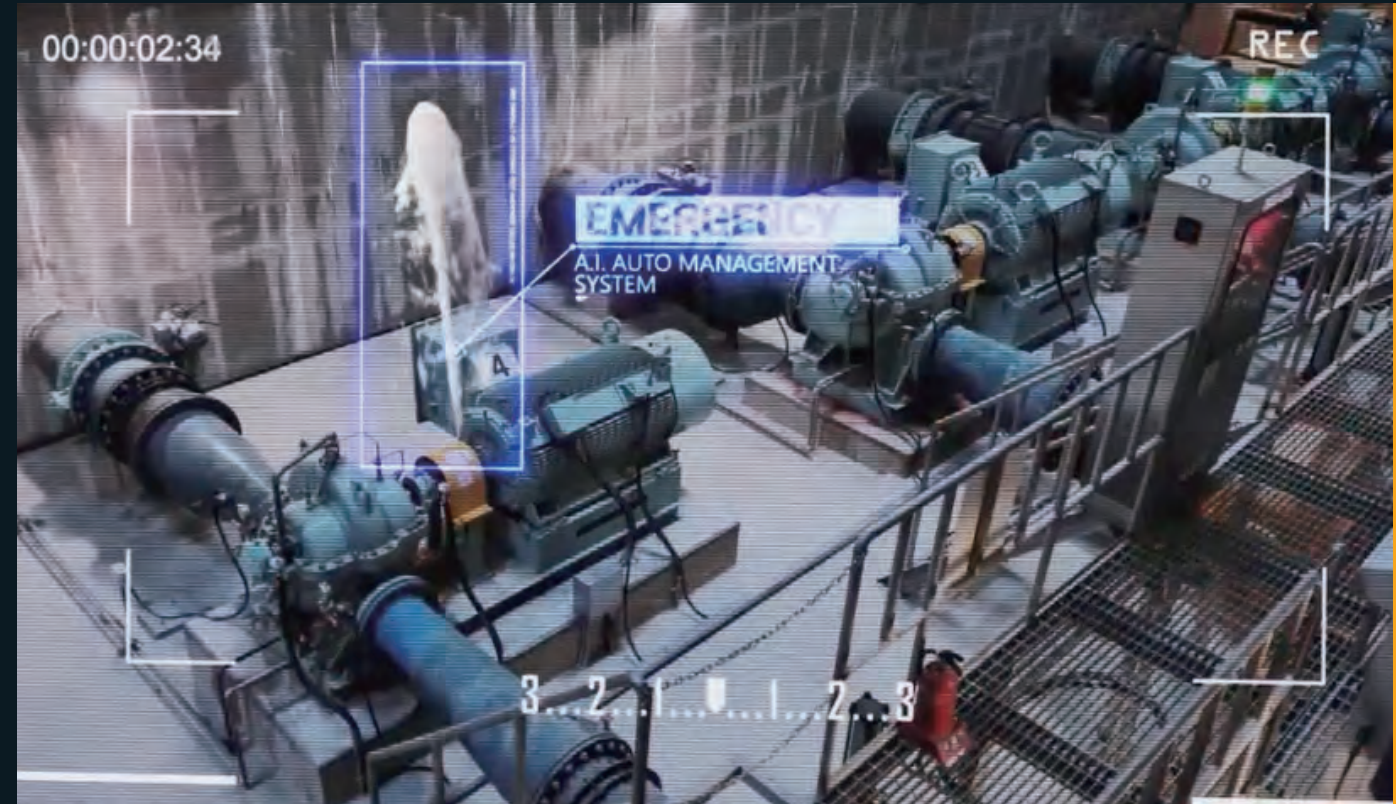
AI 정수장은 자율운영, 에너지관리, 예지보전, 영상안전의 네 가지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자율운영 기술은 원수 유입부터 정수 공급까지 전 과정에서 이상수질을 감지하고, 응집제, 보조제 등 정수 약품의 투입량을 AI가 분석해 조절·운영하는 기

능을 말하며, 에너지관리 기술은 시간대별 물 수요량을 예측하고 실시간 전력량을 분석하여 시설 가동에 필요한 가압펌프 용량을 산출함으로써 전력 사용을 최소화한다. 예지보전 기술은 주요 설비의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를 감지·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방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영상안전 기술은 기존 감시 센서에 AI 기반 영상분석 및 CCTV 자동추적기술을 접목하여 화재, 누수, 감전 등 유해요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정수장 운영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AI 정수장은 AI의 도입 수준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인 초기 자율운영 단계에서는 평상시 근무자와 AI가 함께 운영하되, '이상' 또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근무자가 단독으로 대응한다. 2단계인 고도 자율운영 단계에서는 설비 장애, 수질 패턴 변화, 설비 장애 발생 등 '이상' 상황에서도 AI와 근무자가 공동으로 대응한다. 3단계인 완전 자율운영 단계가 되면 대화형 AI 시스템을 통해 사고와 재해 등 '위기' 발생 상황까지 AI가 근무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스마트 AI 정수장 1단계 기술은 화성정수장에서 실증을 거쳐 지난 2024년 전국 43개 광역정수장에 도입이 완료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스마트 AI 정수장을 생생형 AI 기반의 완전 자율운영단계까지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정수장에서 수행되는 설비 점검, 진단, 사고 대응 등의 고위험 작업 구간에 4족 보행 지능형 로봇이 투입된다. 설비 혼재, 지하 공간 등 위험 요소가 많은 현장에서 물리적·인지적 한계로 인한 위험 노출과 고령화, 미숙련 작업자 등 인력 기반 운영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지능형 로봇은 자율주행 및 특정 구역 운영 기능과 다양한 센서의 조합을 통해 작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누수, 화재 등 시설과 설비 상태를 데이터화한다. 이를 시설관리시스템 등과 연계,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진단 점검체계를 실현하고, 향후 센서 - AI - 로봇을 연계한 상수도 분야의 physical AI 선도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능형 영상 안전감시 시연 모습

첨단 물관리 기술수출로 글로벌 물 시장 선점 속도

AI 정수장 운영기술은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과 기술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24년 1월에는 세계경제포럼(WEF)으로부터 물관리 등 공공서비스 분야 최초로 '글로벌 등대공장'에 선정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인력 운영의 효율성 향상, 전력 소비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설비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위기 대응 시간 단축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되었다. 기존의 등대공장들이 주로 AI를 일부 공정 자동화나 오류 감지에 적용한 데 반해, AI 정수장은 전 공정에 걸쳐 인공지능을 도입해 종합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사령탑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보다 진화된 형태의 첨단 공정관리 모델이다. 이러한 기술력은 국내에서도 높이 평가되어, 2024년 11월에는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되며 공사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물관리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극한기후와 첨단산업 성장에 따라 물 수요가 증가하고 수자원 관리의 복잡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사의 독보적인 물관리 기술력은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물산업 시장을 무대로 그 영향력

을 넓혀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방상수도 시설의 노후화와 전문 운영인력 부족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355개소 지방상수도 정수장을 대상으로 AI 정수장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신행정수도 '누산타라'의 상수도 인프라 구축 사업과 베트남 롱안성 상수도 운영관리사업에 AI 자율운영 등 기술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기술 진단과 국가별 표준 도입 자문을 수행하는 등 글로벌 사업화의 기반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운영기술 개발 과정에서 AI 기반 예측 분석 등 디지털 기술 분야의 국내 강소기업들과의 협력이 주효했던 만큼, 핵심 운영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물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동반 진출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첨단 물관리 기술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물 시장을 선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기술이 곧 국가경쟁력

세계경제포럼(WEF)은 향후 10년간 인류가 직면할 최대 리스크로 기상이변을 지목했으며, 글로벌 물산업 전문기관 GWI(Global Water Intelligence)는 향후 1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손실 중 69%가 물과 관련된 사건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처럼 기후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물은 산업 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AI 정수장 운영기술을 비롯해 물관리 디지털 트윈, 스마트 관망관리 등 초격차 물관리 기술의 고도화와 혁신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내 물산업의 혁신을 견인함은 물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데 속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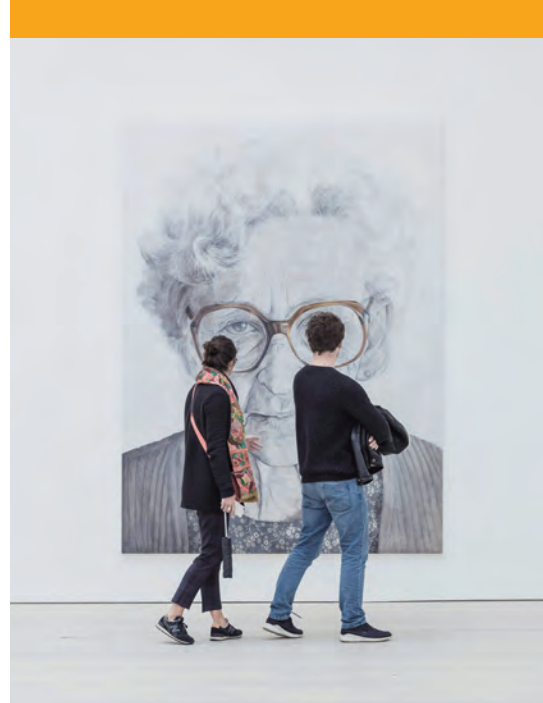


고위험 작업 구간에 투입되는 4족 보행 지능형 로봇



Gallery

ART



‘예술’이라는 다정한 언어

시선을 오래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한 폭의 그림이
마음을 흔드는 잔잔한 선율이
어쩐지 위로가 느껴지는 서툰 손길이 그렇죠.

예술이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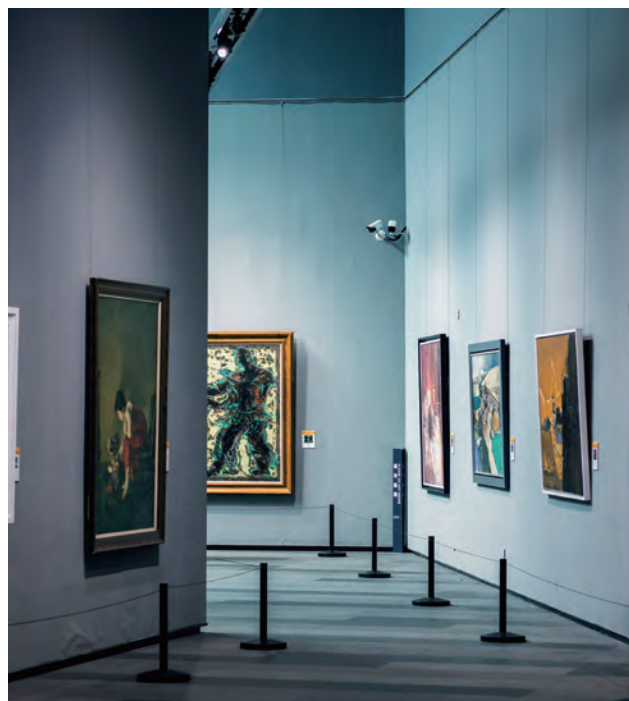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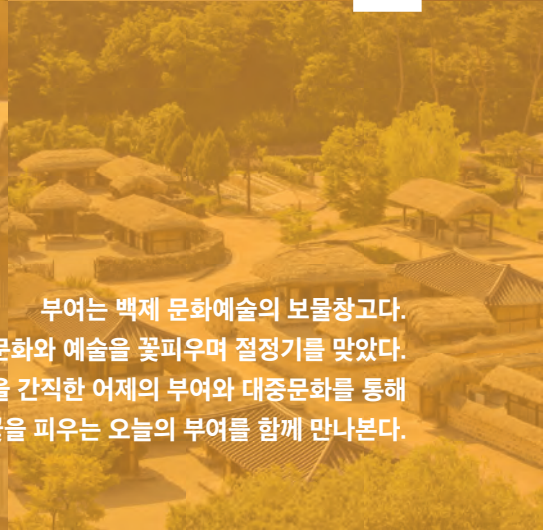
The Spectrum of Art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 사람들은
그림 한 점, 시 한 구절, 음악 한 소절을 찾아 봅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창을 열고 바람을 불러와
무채색이던 하루에 색을 입혀 주니까요.

서로 다른 색과 결을 포개며 쌓아가는 예술 앞에서
우리 세상은 알록달록한 빛으로 물들어 갑니다.

**예술의 앞에서 당신은
어떤 속삭임을 들었나요?**





Theme Road

글. 사진. 임운석 여행작가

백제 예술의

어제와
오늘을
찾아서

부

여

부여는 백제 문화예술의 보물창고다.

백제는 부여에서 화려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며 절정기를 맞았다.
유구한 역사와 화려한 예술을 간직한 어제의 부여와 대중문화를 통해
다시 한번 부흥의 꽃을 피우는 오늘의 부여를 함께 만나본다.

찬란했던 불교 예술을 마주하다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더불어 삼국시대의 한 축을 담당했다. 백제는 웅진에서 부흥의 기틀을 마련한 뒤 사비(현 부여)로 천도해 백제 7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문화적으로도 번영을 이뤘다. 당시 백제는 예술과 종교, 건축 등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다. 특히 불교는 사비시대의 문화적 정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왕은 불교를 국가의 중심 가치로 삼고, 대형 사찰과 불상, 탑 등을 건립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기에 세워진 사찰들은 백제의 건축 기술과 예술성을 잘 보여준다.



백제문화단지는 1400년 전 백제 사비시대의 왕궁인 사비궁과 능사, 백제 생활문화마을 등을 재현해 놓은 대규모 복합 역사 공간이다. 정양문을 지나면 웅장한 사비궁과 능사 5층 목탑에 시선이 사로잡힌다. 사비궁에서 조금 비켜선 자리에 있는 생활 문화마을은 백제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어 가옥의 형태를 통해 그들의 신분사회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백제가 태동할 당시 위례의 왕궁까지 재현해 놓아 백제의 역사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실내외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잘 구성돼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백제문화단지에서 4km 남짓한 곳에 정림사지가 있다. 이곳은 백제가 부여로 천도한 직후 지은 절이다. 지금은 넓은 절터에 정림사지 오층석탑이 홀로 남아 융성했던 백제 불교 문화를 웅변해 주고 있다. 석탑에는 세월의 더께가 켜켜이 쌓였다. 천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탑이 대견스럽고 고맙다. 경내의 잔디 위에 햇살이 비치면 석탑이 한결 멋스럽다. 석탑의 지붕돌은 금테를 두른 듯 반짝이고, 옥개석은 버선코처럼 단아하다. 정림사지 뒤편에는 석조여래좌상이 극심한 파괴와 마멸로 형체만 남은 채 오층석탑을 응시하고 있다.

백제문화단지

A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T 041-408-7290

백제 예술의 극치 ‘역대급’ 국보를 마주하다

국립부여박물관에는 백제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백제금동대향로가 상설 전시 중이다. 1993년 백제왕릉원(당시 능산리고분군)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발굴조사를 진행했는데 그때 지금껏 보지 못했던 큼지막한 향로가 진흙 속에서 발굴됐다. 바로 백제금동대향로였다. 당시 언론들은 연일 관련 기사를 대서특필했고 국민적 관심 또한 매우 높았다. 백제금동대향로 관람에 앞서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영상 ‘사비백제’ 감상을 추천한다. 이 영상은 초고화질의 실감형 입체 영상으로 12대의 4K 빔프로젝트를 활용해 로비 천장과 벽면에 백제금동대향로의 제작과정을 보여준다. 긴장감과 박진감 넘치는 영상미에 관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상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 정각이다. 백제금동대향로는 도교 사상을 바탕으로, 신선이 사는 이상세계를 다양한 형태의 동물과 인물의 형상으로 정교하게 표현한 걸작이다. 백제인들의 탁월한 예술적 감각과 뛰어난 공예 기술, 신비로운 종교적 신념 등이 향로에 응축되어 있어 경이로움, 그 자체다.

국립부여박물관

A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T 041-833-8562

궁남지에서 황홀한 노을빛에 반하다

궁남지는 '세기의 사랑'이라 불리는 백제 제30대 임금 무왕과 신라 선화공주의 전설적인 로맨스가 깃든 곳이다. 무왕을 일컫는 서동은 어릴 적 부르던 아명이다. 궁남지는 궁궐(사비성)의 남쪽에 있는 연못이라는 뜻이다.

궁남지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연못이라는 점이다. 신라 동궁의 월지보다 40여 년 앞선 634년(무왕 35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7월 중순에 백련, 홍련 등 다양한 연꽃이 82,645여 m²의 드넓은 연밭에 만발해 장관을 이룬다. 9월에는 연꽃이 모두 떨어져 조금은 황량해 보일 수 있지만 연밭이 대롱에 매달려 있어 색다른 풍경을 자아낸다.

궁남지 조성의 사상적 배경은 도교의 신선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증거가 연못 가운데 있는 포룡정이다. 자고로 포룡정

은 신선이 노닐 만한 곳이므로 목조다리를 건너 포룡정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일상의 시름이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특히 해 질 녘에는 황홀빛에 물든 연못 속에 포룡정과 주변 수목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시나브로 시간이 흐른 뒤 마주 보는 야경도 놓칠 수 없다. 궁남지는 올해 '한국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된 곳으로 연못에 달빛이 반사된 풍경과 정자의 불빛이 환상적인 야경을 선보인다.

궁남지

A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궁남로 52



부여, 대중문화와 만나다

부여 임천면에 있는 가림성(성흥산성)은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성과 사비성을 지키기 위해 쌓은 석성이다. 성의 형태는 산 정상으로 빙글빙글 둘러싸은 테뫼식이다. 가림성은 나당 연합군에 맞서 싸운 역사의 현장인 동시에 백제 멸망 이후에는 백제 부흥 운동의 현장이기도 하다.

산 정상에 오르면 금강과 일대 마을들이 아득하다. 인적 드문 외딴 성이지만 도로, 주차장, 화장실까지 편의시설이 잘 조성돼 있다. 이곳이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진 덕택이다. 산 중턱에 오르면 그 증거들을 마주한다. <서동요>, <엽기적인 그녀>, <신의>, <대왕세종>, <육룡이 나르샤> 등 가림성을 스쳐 간 수많은 작품의 포스터가 전시돼 있다.

여행객들은 이곳에서 일명 '사랑나무'라 알려진 느티나무를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남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수령 400년 이상 된 이 느티나무는 높이가 22m에 이르는 거목으로 넓게 펼쳐진 뿌리 모양과 일부 나뭇가지가 하트 모양의 반쪽처럼 보여 독특하다. 이곳에서 촬영한 뒤 좌우를 겹쳐 합성하면 절묘하게 하트 모양이 완성된다. 특히 일몰 시각에 맞춰 촬영하면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나 더욱 또렷한 하트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부여군 충화면에 있는 서동요 테마파크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을 위한 세트장으로 조성됐다. 33,000여 m²에 달하는 대단위 규모로써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세트장 가운데 충남권 제일을 자랑한다. 백제와 신라의 건축양식에 따라 고종된 왕궁은 물론이고 귀족과 평민 가옥, 저잣거리 등 옛 건축물이 구역을 나눠 재현해 놓았다. 덕분에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 사진을 촬영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여러 사진 촬영지 가운데 으뜸은 왕궁이다. 특히 하얀색 커튼이 바람에 나부끼는 정자는 화려했던 백제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으므로 어린 자녀의 체험학습장으로도 그만이다.

서동요 테마파크

A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충신로 616

T 041-832-9913

가림성 사랑나무

A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97번길 160



사람들이 모이는 예술의 집

서울 문화역서울284

돔 형태의 지붕, 붉은 벽돌, 박달나무 바닥 등으로 이루어진 이 르네상스식 건물의 역사는 무려 1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1925년 문을 연 옛 서울역사는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무대이자 교류의 관문이었다. 그 옛날 서울역사의 원형을 복원한 ‘문화역서울284’는 시간이 켜켜이 쌓인 역사적 공간이자 예술을 만나는 공간으로 변모하여 오늘날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1층 중앙홀과 대합실은 클래식한 과거의 기운을 품은 채 각종 공연과 전시가 펼쳐지는 무대로 활용된다. 2층에서는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들이, 본관 옆 RTO에서는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문화역서울284의 특별한 점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 공간 안에서 중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이 주는 우아함과 현대미술이 공존하는 묘한 분위기는 이곳에서만 마주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다.

- A**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 H** 11:00~19:00(매주 월요일 휴관,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시간 변동)
- T** 02-3407-3500



광주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광주광역시 근대역사문화마을에 위치한 호랑가시나무 창작소는 1904년까지만 해도 서양 선교사들이 생활하던 사택이었다. 이곳에 정착한 선교사들은 광주의 근대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성인권, 의료, 교육 등에 크게 이바지를 했다. 호랑가시나무 창작소는 역사의 기억을 이어받아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과 전시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화·사진·미디어아트·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가들이 모인 이곳은 창작 활동에 몰입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양림산 자락을 어깨에 걸치고 있어 공기가 맑고 고요한 데다, 인근에 근대역사문화유산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영감이 샘솟는다. 창작소 바로 옆 차고로 쓰이던 10평 남짓한 공간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이라는 이름으로 전시, 강좌, 공연 등 다양한 형식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 A**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47번길 22
- T** 062-682-0976



제주 예술꽃산양

제주 서쪽 한경면의 한적한 마을 어귀에 자리한 산양국민학교. 1958년 개교해 1995년까지 아이들이 뛰놀던 교정에 이제 문화예술을 즐기려는 지역민들의 발걸음을 맞이하고 있다. 창작 레지던시공간인 ‘예술꽃산양’은 폐교 건물을 활용해 전시실, 창작실, 입주작가의 숙소를 비롯해 지역민에게 개방된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국내·외 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과보고전, 오픈 스튜디오의 형태로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 초등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각종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와 지역민이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예술꽃산양의 모토는 ‘마음과 함께, 자연과 함께’이다. 많은 지역민들의 유년 시절 추억이 스며 있고, 풍요로운 제주의 자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자연과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A**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181
- H** 10:00~18:00(매주 월요일 휴관)
- T** 064-800-9188

공



대전 대전예술가의집

3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대전 시민들의 문화예술 사랑방 역할을 해 온 옛 시민문화회관이 더 큰 품으로 돌아왔다.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세워진 ‘대전예술가의집’은 다목적 공연장, 전시실, 창작스튜디오 등을 두루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특히 다목적 공연장인 ‘누리홀’은 좌석을 자동으로 펼치고 접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예술가들이 실험정신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다. 이름만 보면 문화예술인만을 위한 공간으로 읽히기 쉽다. 하지만 ‘대전예술가의집’에는 ‘모두가 예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단순히 전시와 공연이 열리는 무대를 넘어 예술가들이 서로 창작을 나누고 시민들에게 일상 속 예술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전문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시민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다. 때로는 관객으로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때로는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직접 동참하며 예술을 매개로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시민들은 예술을 일상의 일부로 느끼게 된다.

- A**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
- T** 042-480-1081



간

어린 시절 사찰을 놀이터 삼던 소녀는 어느새 전통예술의 맥을 잇기 위해 붓을 든 화공이 됐다. 행복을 기원하던 선조들의 마음을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전하며 시대를 뛰어넘는 위로를 건네는 정규린 화공의 여정을 따라가 본다.

붓끝에 담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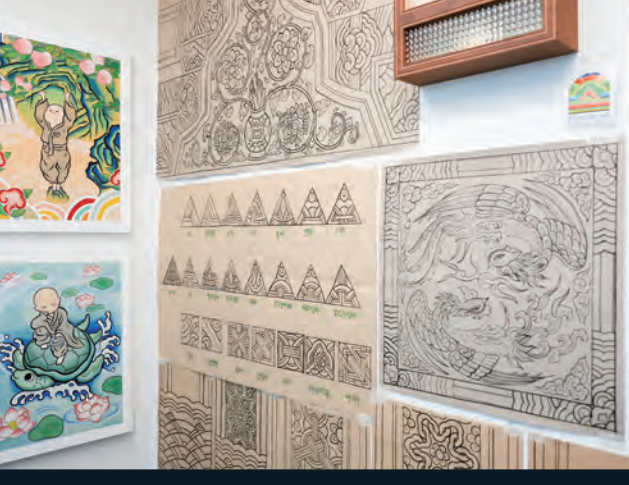
정규린 화공

평안을 바라는

마음



Voice on Road



중학생을 끌어당긴 전통의 멋

기공이 장대한 붉은 기둥을 따라 시선을 올리면, 그 끝에 유려하게 뻗은 처마가 드러난다. 처마를 받치고 있는 공포에는 오방색이 겹겹이 어우러진 선명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 천장이나 기둥, 벽면 등 건축 곳곳에 여러 색으로 문양과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을 ‘단청’이라 한다. ‘건축물의 백미’라 불리는 단청은 정교한 붓질의 연속이자, 멀리서 보면 질서 있는 색의 울림이다.

정규린 화공은 고작 열다섯 나이에 깊이 있는 전통 색채미술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됐다. 중학생 소녀가 ‘전통’에 마음에 빠앗기는 일이 흔치 않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정 화공이 단청에 빠졌든 건 그리 특별할 일이 아니란다. “외갓집에 작은 사찰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 가면 법당에 누워 낮잠을 자곤 했죠. 절을 놀이터처럼 여기다 보니 화려하고 장엄한 단청에 눈길이 간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가 단청에 발을 들인 이유는 ‘웅장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지독할 만큼 치밀하게 계산된 예술이었다. “작업을 하기 위해 단청과 가까워져 보니, 착시를 만드는 예술이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단청을 멀리서 감상하잖아요. 시선도 아래에서 위를 향하고요. 시선에 따른 그림의 각도는 물론 부재가 부식되거나 고르지 않을 때도 이를 감쪽같이 가리기 위한 계산이 필요했어요. 완벽한 조화로움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마음을 머물게 하는 작품

그러나 전통예술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예술인 만큼,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무형의 기술을 익히는 데 꽤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 예컨대 색채의 조화를 찾고 깊이를 더하는 법 같은 것들이다. 목조·석조 같은 건축양식과 우리나라에 산재한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지식도 쌓아야 했다. 이처럼 높은 장벽을 넘어 현재 정 화공은 국가유산 수리기술자로서 단청의 맥을 잇고 있다.

단청에 이어 정 화공이 눈을 돌린 곳은 불화였다. 불화는 불교의 세계관이나 부처의 모습을 담은 그림을 말하는데, 정 화공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예술인 동시에 수행이기도 하단다. 부처님의 세계를 눈앞에 펼쳐내는 일인 만큼, 붓을 들 때마다 잡념이나 욕심을 내려놓는 일로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불화를 그릴 땐 색을 여러 번 덧칠하는 과정이 필수인데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단련하게 된다고 불화를 그릴 때 ‘수행’한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기도 했다. “제가 그린 불화 앞에서 한 어르신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내가 그린 그림이 누군가에게 기도의 대상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림에 대한 제 태도가 바뀌었어요.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보는 이들에게 마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다짐했죠.”

단청이 공간을 채우는 예술이라면, 불화는 마음을 채우는 예술

이었다.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그는 비로소 전통예술 자체가 지닌 깊은 뜻을 알 수 있었다. “처음 단청에 빠졌던 이유는 단순히 ‘멋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술 속에 담긴 마음을 알게 됐어요. 단청이나 궁중회화, 민화 등 우리 전통 예술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더라고요. ‘복을 기원하는 마음, 평안과 행복을 바라는 온정’이죠. 선조들의 마음이 이제야 온전하게 느껴져요.”

오늘에 닿은 백제의 미학

선조들의 예술혼을 이어받은 정 화공은 우리나라 전통예술에 자기만의 색깔을 조금씩 더해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찰이나 전통 건축물이 아닌 현대의 공간 속에 전통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한 카페 구조물에 단청을 그리는 작업을 했는데, 이를 지켜보던 지역민들은 하나 같이 “우리 것이 정말 멋있네요!” 하며 감탄을 내뿜었다. “병머리초 양식의 바탕에 부여의 마스코트인 ‘금황이’, ‘금용이’, ‘금동이’를 배치했어요. 고색창연하면서도 요즘 사람들이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게 표현해 과거와 현재가 잘 스며들게끔 하고 싶었어요.” 그의 말처럼 요즘 정 화공은 그림에 ‘편안함’을 더하기 위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옛날 우리 그림은 썰할 만큼 선명하거나 혹은 어두워 위엄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오히려 무섭고 으스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에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작품을 마주할 수 있도록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정 화공이 추구하는 방향은 백제, 즉 부여의 예술과도 닿아있다. “삼국을 비교해보면, 고구려는 강인하고, 신라는 세련됐죠. 그런데 백제의 예술은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소담하면서도 부드럽고, 은은하면서도 섬세하거든요.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백제의 예술처럼 섬세한 온정을 담고 싶어요.”

전통예술이 지닌 힘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 있다. 정규린 화공이 남긴 붓 자국 하나하나를 오늘날 사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물하고 있다. 먼 훗날, 우리는 그가 과거에서 걸어 올린 위로에 기대어 내일로 나아갈지 모른다.



국가유산청

오얏꽃 오일램프

세종대왕이 거닐던 시절의 궁궐 향기를 내 방안으로 들여올 수 있다. 조선시대 궁궐에는 꽃과 나무가 많았는데 그중 덕수궁은 오얏꽃이 특히 아름다웠다고 한다. 국가유산청에서 출시한 ‘오얏꽃 오일램프’는 파라핀 오일을 이용해 불을 밝히는 제품으로 무드등 겸 오일램프로 활용할 수 있다.

케데헌이 쏘아 올린 K-굿즈 바람 전통예술 굿즈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의 미소 키팅

국립경주박물관의 주요 유물 중 하나인 ‘얼굴무늬 수막새’를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다. 온화한 표정 덕분에 ‘신라의 미소’라 불리는 이 유물을 모티브로 제작된 ‘신라의 미소 키팅’은 섬세한 자수로 유물의 형태를 구현한 것이 포인트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으로 K-문화가 또 한 번 급류를 타고 있다. K-문화의 흥행이 더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싶지만, 지금 한국을 향한 세계인의 관심은 더욱 깊고 진해졌다. 등장 캐릭터와 배경이 되는 장소, 음식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주목받는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굿즈다. 화면에서 꺼내고 싶을 만큼 소유욕을 자극했던, 한국 색이 물씬 풍기는 전통예술 굿즈를 소개한다.

국립경주박물관

약사여래 찜질핫팩 인형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울 때는 ‘약사여래 찜질핫팩 인형’을 품에 안아 보자. ‘약사여래 찜질핫팩 인형’은 온·냉찜질이 가능한 생활소품이다. 따뜻한 물을 넣어 목이나 어깨에 올려두면 부처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듯 미소가 절로 난다.



국립중앙박물관

곤룡포 비치타올

조선시대 임금이 입었던 곤룡포의 문양을 그대로 옮겨와 타월에 새겨둔 ‘곤룡포 비치타올’은 크기와 색감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한다. 해변이나 나들이에서 펼치면 그 자리에서 ‘왕의 강림’을 재연할 수 있어 SNS 인증샷 아이템으로도 손색없다.



국립중앙박물관

까치호랑이 배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호랑이 캐릭터 ‘더피’는 호랑이 같은 외형에 고양이 같이 살가운 행동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덕분에 각종 까치호랑이 굿즈에 대한 관심도 수직상승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민화 속 해학적이고 익살스러운 호랑이와 까치를 재해석해 만든 ‘까치호랑이 배지’를 선보이고 있다. 작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배지는 옷깃이나 가방에 톡 꽃기만 해도 전통미와 개성이 동시에 살아난다. 게다가 까치호랑이는 예부터 액운을 막는 수호신으로 여겨졌다고 하니 일상 속 작은 행운도 기대해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

미니 달항아리 오브제 캔들

조선백자의 정수인 달항아리는 단순한 항아리를 넘어 소박함과 기품을 동시에 담아내는 예술작품으로 사랑받아왔다. 풍요와 복을 불러온다 하여 ‘운테리아’의 소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달항아리. 국가유산청에서는 이를 접근이 쉽고 활용도가 높은 캔들로 재해석했다. ‘미니 달항아리 오브제 캔들’은 매끈한 곡선과 백자의 은은한 색감을 살려 그 자체로 공간에 미감을 더한다. 여기에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일상의 공간을 아늑하고 따뜻하게 감싼다.



더 많은 굿즈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국립중앙박물관 샵 <https://www.museumshop.or.kr>

국가유산청 K-Heritage Store <https://khstore.or.kr>



Taste Note

글. 조수빈

한 송이의
아름다움

아카시아

테이블을 예술로 만드는 마지막 터치, 식용꽃

인공적인 색소, 향료 없이 그 자체로 음식의 즐거움을 더하는 식용꽃. 떡이나 술 등의 음식에 활용되던 식용꽃이 최근 샐러드, 파스타 등에 올라 보는 맛을 더하고 있다. 한 접시의 예술을 완성하는 식용꽃의 세계로 초대한다.

봄을 머금은 맛

진달래

‘화전’이란 ‘꽃을 지진 전’으로, 예로부터 봄이면 산과 들에 지천으로 피어나는 진달래꽃을 따 화전을 부쳐 먹던 사람이 많았다. 하여 진달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봄을 담은 식용꽃’으로 익숙하다. 진달래는 약간 시고 달콤한 맛에 여러 효능을 갖고 있다. 우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따뜻한 기질이 있어 생리불순, 무월경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약재로 쓰인다. 기관지와 폐를 보호하고 가래를 삭혀 주어 천식에도 효과가 좋다.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할 경우 진달래를 달여 먹으면 낫는다는 민간요법이 있을 정도다.

꽃술에는 약간의 독이 있어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을 잘 씻어 요리해야 하며, 진달래와 생김새가 비슷한 철쭉은 독성을 갖고 있어 이를 잘 구분해야 한다.

아카시아 꽃은 꿀로 유명하지만 튀김, 부각, 차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도 있다. 꽃을 깨끗이 씻은 다음 바삭하게 튀기면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아카시아 튀김’이 완성되고, 밥을 짓다 뜸 들이는 시간에 꽃잎을 살짝 엮어 주면 제철밥상에 어울리는 ‘꽃밥’이 된다. 이처럼 아카시아는 특유의 향긋함과 달콤함으로 요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아카시아의 은은한 향처럼 꽃에는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성분이 있어 불면이나 긴장 완화에 좋다. 또한 항염 및 살균 성분이 들어 있어 염증을 완화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구강 내 세균을 잡는 데도 탁월하다.



작지만 존재감은
확실한

한련화



깊고 그윽한 향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장미는 꽃잎에서 미세하게 느껴지는 달콤한 맛이 매력적이다. ‘로즈워터’, ‘로즈시럽’은 음식의 단맛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며, 꽃잎이 부드러워 그 자체로 디저트와 음료에 곁들여지기도 한다. 장미는 천연 항산화제라고 불릴 만큼 폴리페놀, 비타민 C 등의 성분이 풍부한데,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장미의 폴리페놀 함량은 녹차의 약 2배, 오렌지 껍질의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덕분에 피로 회복과 피부 노화 방지 등에 효과가 좋다. 장미 특유의 은은한 향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며 몸의 균형을 잡아 주어 생리 전 증후군을 완화하는데 탁월하다.

보기 좋은 꽃이 맛도 좋은

장미



한련화(Nasturtium)의 이름은 라틴어 ‘Nasus Tortus’에서 유래했는데 이를 번역하면 ‘코를 찡그리게 하는’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 꽃의 향은 향긋하다. 반전은 맛이다. 입 안에서 한련화는 톡 쏘는 맛으로 코를 찡그리게 만든다. 약간의 새콤함도 있어 요리에 넣으면 식욕을 자극하고 입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꽃은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등 선명한 색을 띠어 요리에 포인트 장식으로도 올리기에 좋다. 한련화는 꽃뿐만 아니라 잎, 씨앗까지 모두 먹을 수 있어 ‘버릴 것 하나 없는 꽃’으로 통한다. 꽃은 톡 쏘는 거자맛이 특징이며, 잎에서는 약간 매콤한 맛이 난다. 씨앗으로는 케이퍼를 대신해 피클을 담글 수 있다. 한련화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만성 질환 예방에 좋으며, 지방 세포 분화를 억제해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

나만의 Art 를 그리다

Art를 단순히 ‘거창한 작품’으로만 일컬을 수는 없다.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시간의 연습, 땀방울로 같고 닮은 기술이 쌓여야 비로소 빛을 내는 것이 바로 ‘Art’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은 ‘Art’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 그들의 시선을 쫓아본다.

응답자 수 155명

‘ART’라는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40.9%

회화, 건축, 디자인 등
예술작품



39.6%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생활공간



16.9%

감동, 경이로움, 몰입 등
정서적 인상



2.6%

화가, 연주자, 장인 등
숙련된 기술

내가 생각하는 ‘예술’의 역할



33.8%

감동과 위로의 전달



33.1%

새로운 관점의 제시



31.2%

일상에 아름다움 더하기



1.9%

기타
(사회에 질문 던지기, 일상에서 멀어지기, 내가 인간이라는 자각 등)

‘예술 작품’을 접할 때 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은?

43.5%

창의성, 자유로움

35.1%

경이로움, 감탄, 감동

12.3%

위로, 치유

7.1%

낯설, 거리감, 난해함

2%

기타(호기심, 깨달음, 부러움 등)

미술, 음악, 영상 등 장르를 불문한 나의 최애 예술가

아름다운 목소리와 열정적인 연기로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보이는

뮤지컬 배우 박광현

K-water연구원 김효원

전 세계의 어린이와 어른들이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꿈과 이야기를 만들어낸
월트 디즈니

금강권수도사업단 박나은

사원지원한 음악이 마음을 뚫고, 칼군무로 눈을 즐겁게 하는 이 시대의 아이돌!

헌트릭스

윤문권지사 강병희

입을 다물 수 없던 영상미와 스케일에 반해 우주비행사를 꿈꾸게 했던 SF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차) 이민수

한 작품을 통해 전 세계의 공감을 이끌어낸
한강 작가

금강유역협력단 서석호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선율로만 감정을 전달하는 힘이 대단한
피아니스트 조성진

창원권지사 유한성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나의 반응은?

60.4%

일단 지켜보다
괜찮다고 생각되면 사용하기

35.1%

직접 써보며 평가하거나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기

3.9%

웬만하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기

0.6%

기타
(주변인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기)

나에게 ‘기술’이란?

55.8%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

36.4%

미래를 열어주는
촉매제

6.5%

인간의 능력을
높여주는 도구

1.3%

나와는 거리가
있는 분야



잊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던 (Positive) 예술작품

스페인의 사그리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보았을 때 마치 외계인이 건축한 듯,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특이함이 느껴졌어요.

경영혁신실 김태연

구병모 작가의 '파과'를 읽는 동안 남다른 어휘력과 문장력에 좌절과 감탄을 했고 동시에 재미도 느꼈어요

인재경영실 박세현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 한국 팀이었던 '범잡'의 메가크루 영상을 보았을 때의 충격. 정말 소름 그 자체!

안동권지사 김경민

종교적 미장센과 자연이 주는 '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승효상 건축가의 하양 무학로 교회. 그곳에서 치밀하게 설계된 따스함에 경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천수도지사 서진수

제주도에서 본 바다 위의 아름다운 노을. 차마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한 폭에 담아낼 수도 없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유역협력단 전경환

클로드 모네의 <수련>을 보고 우리의 삶도 당장 코앞은 힘들지만, 멀리서 보면 멋진 그림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산권지사 양수빈

애플의 첫 'S 시리즈'인 '아이폰 3GS'는 혁명이었습니다.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스마트폰'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자원사업처 최일환

변화의 파도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류는 30만 년 동안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협동하며,
다양성과 창의성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다는 사실이다.

완벽한 인공지능과

우리는 어쩌면 지구 역사상, 혹은 우주 역사상 가장 운이
좋거나 불운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좋은 싫든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으니까 말이다.

언제부터 예정된 필연이었을까? 2016년 알파고가 바둑에
서 이세돌을 이긴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오늘날의 컴퓨터
개념이 자리 잡은 1940년대, 혹은 그 기초가 마련된 1920
년대의 물리학일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뉴턴이 우주
의 작동 원리를 인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게 한
1600년대였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나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들이 세계
의 질서를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일 수도 있다. 더 멀리 가
면 현생 인류가 등장한 30만 년 전, 생명체가 지구에 출현
한 38억 년 전, 혹은 우주가 탄생한 138억 년 전까지 닿는
다. 자연법칙이 은하와 별과 행성을 만들었듯, 지능을 가진
무생물이 언젠가 나타나는 일 또한 예정된 흐름이었을까?
지구 밖 생명체의 존재는 아직 불분명하다. 지구만을 기준

인간의 불완전성

으로 시간을 다시 계산해 보자면, 지구는 우주가 태어난
뒤 92억 년이 지난 시점에 형성되었고, 약 8억 년 후 최초
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이후 38억 년 동안의 진화 끝에 현
생 인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인류의 역사는 우주의 시계로
보면 찰나와도 같은 30만 년에 불과하다. 처음에는 다른
종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문명을 일군 지 불과 만 년 만
에 인류는 마침내 우주에 없던 새로운 지적 존재, 인공지
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바로 그 경계 위에 서
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100년으로 치면, 지금 세대는 우주 역
사 전체를 통틀어 극히 드문 순간을 살고 있다. 지구 생명

의 출현 시점으로부터 따지면 3천 8백만분의 1, 인류 등장
으로부터 따지면 3천분의 1, 문명으로부터 따지면 백분의
1 확률의 순간에 우리가 당첨된 셈이니까. 앞으로 백 년 혹
은 그 이후의 백 년 동안, 인공지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경
이로운 발전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인간 이외의 지능이 처
음으로 출현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기회는 다
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는 30만 년 전 조용히 시작된 인
류의 탄생을 그 누구도 자각하지 못했던 상황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알파고의 승리로부터 10년, 그리고 ChatGPT가 등장한 지
불과 3년. 그 사이 인공지능은 이미 여러 영역에서 인간을
추월했다. 예술, 인문학, 과학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인공
지능이 인간을 넘어서지 못할 분야가 과연 남아 있을까 하
는 생각마저 든다. 지금은 인간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임무
를 수행하는 보조적 존재이지만, 언젠가는 인간처럼 모든
상황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
간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혹시 우리가 가
장 불운한 세대가 되는 건 아닐까?

돌이켜보면,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불확실성과 고난 속에
서 이어져 왔다. 맹수에게 목숨을 잃고, 자연의 거대한 힘
에 무너졌으며, 때로는 사소한 이유로 서로를 해쳤다. 하지
만 인간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협동하며 사회를 이루고 문
명을 쌓아 올렸다. 완벽한 개인도, 완벽한 사회도 존재하
지 않았다. 역사에 길이 남은 위인들조차 약점을 지녔지만
그 불완전함은 그들의 업적을 가리지 못했다.

어쩌면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를 이유로 차별하
지 않으며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
고유의 가치인지도 모른다. 위기 속에서 놀라운 창의성으
로 돌파구를 찾고 문명을 확장해 온 힘은, 오히려 완전하
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일 테다. 80억 명의 인간은 모두 다
른 모습과 다른 유전자를 지녔고, 각기 다른 경험과 시각
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누구도 완전할 수 없기에 서로의
차이를 메우며 사회를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지식을 소수의 시스템 안에 모아 학습
하고, 거의 빛의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인간은 배움
도 소통도 느리지만, 그 느림 속에서 다양성이 생긴다. 바
로 그 느림과 다양성이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낸
다. 생명체가 수십억 년의 변화 속에서도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품고 있었
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인류는 새로운 진화의 길에 들어
설지도 모른다. DNA의 자연적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간과
기계가 결합한 새로운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다. 변화의
파도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류는 30만
년 동안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협동하며, 다양성과
창의성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길어 올렸다. 인공지능
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간다면, 인류는 불완전함을 품은 채
로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갈 것이다. 어쩌면 바로 그 점이,
우리가 미래에도 여전히 고유한 가치를 지닌 지적 생명체
로 남을 수 있는 이유일지 모른다.

Talk with

글. 조수빈 사진. 신시컴퍼니 제공

영원한 댄싱퀸의 무대에서 잘 노는 기술

뮤지컬 배우 최정원

‘댄싱퀸’이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노래 제목이 아니라 최정원 배우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 데뷔 36년, 그가 이렇게 오래 무대 위에서 빛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의 대답은 ‘사랑’으로 귀결된다.

천 번의 무대, 천 가지의 얼굴

1989년 데뷔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무대에 올라 노래하고 연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최정원 배우. 그가 거쳐 간 작품은 대충 헤아려 봐도 열 손가락은 훌쩍 넘을 정도로 많지만 그중에서도 ‘최정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은 <맘마미아>이다. 반대로 <맘마미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배우 또한 최정원이다. 전설적인 팝 그룹 아바(ABBA)의 노래를 엮어 만든 뮤지컬 <맘마미아>는 그리스의 작은 섬을 무대로 주인공 도나와 친구들, 딸 소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최 배우는 서른여덟의 나이에 도나를 만나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나로서 굳건히 무대를 지키고 있다. 한 명의 배우가 단일 역으로 1,000회 이상 공연에 오르는 것은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실제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공연된 <맘마미아>의 최장수 도나로 손꼽힌다.

이밖에도 그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는 작품이 많다. <시카고>는 2000년 초연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하데스타운>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헤르메스로서 역할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최 배우에게 무대는 ‘반복’이 아니라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것이 같은 공연일지라도 어제보다 더 나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집요하게 캐릭터를 파고들고, 혹독하게 자기 관리를 한다. 때로는 ‘인간 최정원’이 살아온 길에 영향을 받아 캐릭터의 깊이가 더 풍부해지기도 한단다. 덕분에 하나의 배역으로 천 번을 넘게 무대를 올라도 그는 여전히 새로운 얼굴을 보여 준다. 그것이야말로 최 배우가 가진 위대한 기술이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무대뿐

올해로 데뷔 36주년. 최 배우는 데뷔를 한 후 내리 달렸다. 공연이 없는 날에는 연습을 하고, 연습이 없는 날에는 체력 관리하랴, 컨디션 조절하랴 실 틈이 없단다. 힘에 부치는 날이 있을 법도 한데 무대만이 그의 운명인 걸까, 누구나 한 번은 찾아온다는 슬럼프조차 느낀 적이 없단다. “저는 공연장 가는 길이 가장 설레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는 기분 아닐까요. 매일 매일 놀이터를 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지겨워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노래를 더 잘 해야지’라는 생각뿐이죠. 그런 걸 보면 저는 무대 위에서 가장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라는 최 배우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자신을 ‘행운아’라고 표현했다.

사랑하는 사람은 빛이 난다고 했던가. 무대를 사랑하는 그의 아우라는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얼마 전 뮤지컬 <맘마미아>의 연출을 맡고 있는 폴 게링턴을 만났는데, 그가 ‘난 한국에 오는 게 늘 즐거워!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너의 공연을 볼 수 있기 때문이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도나 중 커튼콜은 제가 제일 잘한대요. 제가 전하고픈 에너지를 알아주는 구나.’라는 생각에 괜히 눈물이 찼끔 났어요.”라며 웃었다. 무대 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최 배우는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항상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무대에서 아쉬움일랑 한 톨도 남아있지 않도록 뛰어 논다. 하지만 그와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십 년 뒤에도, 이십 년 뒤에도 그를 무대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배우 최정원’이 있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무대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뮤지컬 <맘마미아!>의 도나 역으로 무대에 오른 게 벌써 19년째라고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맘마미아>는 저에게 참 특별한 작품이에요. 배우로서 역사를 쓰고 있다는 생각에 벅차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이 작품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비로소 도나에게 몰입할 수 있었죠. 제가 겪은 엄마로서의 성장통과 ‘딸’이라는 존재가 알려준 수만 가지의 감정을 노래할 때면, 그 순간만큼은 배우가 아니라 정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노래하는 것 같아 울컥해요.

딸 유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처음 도나 역을 맡았는데, 그 애가 벌써 27살이 됐어요. 극 중 딸인 소피보다도 나이가 많죠. 언젠가는 딸이 <맘마미아!>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에게도 저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구나’ 싶었대요. 우리 모녀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 작품이라 애뜻합니다.



<시카고> 또한 록시와 벨마를 거치며 20년 째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할을 오래 맡을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저는 고여 있지 않은 배우예요. 언제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같은 캐릭터를 다시 연기하게 되었을 때 혹여나 제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늘 고민하죠. 연기력과 표현력에 대한 연

구는 물론이고 노래 레슨도 꾸준히 받고 있고요. 게다가 제 삶의 궤적에 따라 캐릭터에 대한 몰입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 시즌을 거듭할 때마다 “이번 시즌이 가장 좋았어요.”라고 말하는데, 진짜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했으니까요.



뮤지컬 배우로서 여러 캐릭터의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다. 캐릭터를 해석하는 배우님만의 기술은 무엇인가요?

<시카고>의 록시나 벨마처럼 1920년대를 살아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총으로 쏘본 적도 없어요. <하데스타운>의 헤르메스처럼 지하세계를 가본 적도 없죠. 이처럼 제가 경험해본 적 없는 캐릭터의 배경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책이나 영화 같은 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감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고민도 많이 해요. 반면 <맘마미아!>에선 좀 더 자유로워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자, 엄마이자, 친구잖아요. 제가 느낀 사랑과 우정을 토대로 해석하니 캐릭터의 방향성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이렇듯 여러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 시절에 태어나지도, 그곳에서 살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도 공연이 있는 날이면 ‘나 오늘 저녁에 그리스 해변에서 집을 짓고 사는’도나 ‘로 살게 되잖아!’라는 생각에 아침부터 눈이 번쩍 떠진다니까요.



극을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몰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 36년간 무대에 오르며 체득된 몰입의 기술이 있나요?

뮤지컬 <맘마미아!>의 경우 1,000회가 넘게 공연을 하다 보니 대사가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상대방 대사까지 줄줄 외우고 있죠. 하지만 관객들은 모르잖아요. 모든 것이 오늘 처음 일어난 일인 듯 연기해야 하는데, 그 지점이 정말 재미있어요. <시카고>는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 연기하는 장면이 많은데, 그럴 땐 관객에게서 에너지를 받아요. 호응이 너무 뜨거운 날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흥분을 하게 되는데, 같은 공연 안에서 조금씩 다른 점을 찾는 게 N차 관람의 묘미 아닐까요(웃음).



무엇이 배우님을 계속해서 무대 위에 서게 만드나요.

무대 위에서 가장 순수해진 저를 만나요. 흔히들 ‘초심을 잃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대 위에만 서면 늘 흥분되고 신나거든요. 마치 이 일을 처음 했을 때처럼요.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으니 얼마나 행운이예요. 요즘은 <맘마미아!>와 <펄피스> 공연으로 거의 매일 무대 위에서 살고 있는데 힘들기는커녕 컨디션이 훨씬 좋은 거 있죠. 천상 무대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봐요.



‘뮤지컬 배우 최정원’을 롤모델로 꼽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 가슴이 뜨거워져요. 특히 배우로서 나아가 드는 것이 무서울 수도 있는데 “최정원 선배 같은 배우가 될 거야. 선배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라고 말을 하는 후배들을 보면 행복해지는 동시에 책임감이 느껴지죠.

사실 후배들에게서 제가 도리어 자극을 받기도 해요. 동료들의 작품을 꼭 챙겨 보는 편인데, 후배일지라도 분명 제가 배울 점들이 있거든요. 저는 데뷔한 지가 워낙 오래 됐잖아요. 90년대 배우로서 제가 좀 뒤쳐질 수 있는 점들을 지금 한창 사랑받고 있는 후배들을 보며 배우는 거죠. 서로 좋은 자극을 받으며 성장하고 싶어요.



배우 최정원의 꿈은 무엇인가요?

뮤지컬 <맘마미아!>의 넘버 중 ‘댄싱퀸(Dancing Quee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며칠 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제가 등장할 때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가사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저의 에너지가 닮았나 봐요. 실제로 ‘댄싱퀸’은 제 인생 곡이기도 해요. ‘신나게 춤 춰봐! 인생은 멋진 거야! 너는 정말 최고의 댄싱퀸이야!’라는 가사가 마치 저한테 하는 말 같더라고요. 이 말을 제 묘비명으로 새겨달라고 딸에게 말해두었어요.

저는 여전히 무대가 좋아요. 관객들이 없는 곳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는 제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죠. 60살, 70살, 마지막 순간까지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관리해야겠지만, 저는 잘 할 거예요(웃음).





함께 만든 10년의 변화 제주지역협력단

우뚝 선 한라산과 너른 제주 앞바다. 그 가운데에 제주지역협력단이 있다.
이 눈부신 풍경을 앞에 두고도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자량으로 '서로'를 꼽는다.
함께하기에 제주의 물을 더 맑고 안전하게 지켜 나갈 수 있다는 제주지역협력단의 이야기를 담았다.



숫자로 증명한 성과

제주지역협력단이 출범한 건 2016년의 일이다. 읍면지역의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을 위해 8명의 직원으로 첫발을 댄 제주지역협력단은 어느덧 90여 명의 직원들이 3개의 도자체사업, 7개의 노후상수도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중점사업은 제주도의 누수를 잡고, 도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현무암이 주된 지질 구조를 이루고 있어 빗물이 쉽게 땅에 스며든다. 이에 정확한 누수지점을 찾기 힘든 데다 노후관이 많아 유수율 제고가 쉽지 않은 실정. 그럼에도 올해 신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최대확보(4개)를 시작으로, 동지역 유수율을 사업초기 56.3%에서 지난달 73.4%까지 끌어올렸으며, 제주시 서부지

역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수행하여 당초 목표였던 85%를 훌쩍 넘겨 무려 90.3%를 달성했다. 제주지역협력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서부지역의 안정적인 유수율 유지를 위해 제주 최초로 성과 유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소통 차원에서 '제주 상생 소통 플랫폼'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제주지역협력단은 이런 눈부신 성과보다도, 부서의 자량거리가 무엇이나는 물음에 한목소리로 '서로'를 꼽으며 동료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육지와 떨어져 있어 여러 아쉬움이 들 때도 있지만,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서 청주로, 청주에서 대전으로 가야 하다 보

니 인재개발원까지 교육 한 번 다녀오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우리만의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입니다.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소통교육', '신입직원 직무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비스포크 프로그램에도 전 직원이 참여 중이죠."라는 허욱 과장의 말에 서효정 대리는 "덕분에 직원들 간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주말에는 직원들과 한라산 등산도 하고, 서핑이나 스노클링을 함께 하기도 해요. 제주도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추억이죠!"라며 자랑했다.

수타벅스와 함께한 특별한 기념일

올해 제주지역협력단이 내세울 일이 하나 더 있다. "올해 제주 사업을 시작한 지 10주년 되는 해예요.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축하해 주면 좋겠어요!"라는 서효정 대리의 사연에 수타벅스가



QR코드를 스캔하여
수타벅스와 함께한
제주지역협력단의
즐거움 모습을 만나 보세요.



흔쾌히 떠날 채비를 했다. 육지를 떠나 제주까지 수타벅스가 온다는 소식에 일주일 전부터 온 직원들이 떠들썩했었다. "수타벅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이곳까지 와 주시다니 정말 놀랐어요! 이번 여름 극심한 폭염에 맞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라며 한지는 사원이 기쁜 마음을 전했다. 제주지역협력단은 먼 걸음을 한 수타벅스를 위해 '제주도의 진짜 맛'을 보여주겠다며 특별한 장소로 호출했다. 이들이 초대받은 곳은 제주 자연의 보고인 '한라생태숲'. 이곳에는 이미 많은 직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이 서둘러 모인 까닭은 수타벅스 만큼이나 반가운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따로 근무하고 있는 90여 명의 직원들이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아주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늦더위가 마지막까지 기승을 부리던 날, 이들이 손에 받아든 특별한 간식은 빙수였다. 빙수의 근본인 '팔빙수'와 새콤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망고빙수' 중 취향에 따라 하나씩 골라 들고 벤치에 둘러앉아 소풍 온 기분을 만끽했다. 오랜만의 휴식을 즐기는 직원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심과학 단장이 질문을 던졌다. "혹시

제주도 올레길 걸어보셨어요? 멋진 풍경을 보며 걷다 보면 생각도 정리되고 기분도 좋아지는데, 꼭 한 번 둘러보세요."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26년차 제주 토박이라는 김형환 인턴은 "저는 비자리를 추천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사랑나무'가 있으니 꼭 둘러보세요!"라며 덧붙였다. 이들에게 수타벅스는 단순히 '이벤트'가 아닌 그간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다시 십 년을 달려나갈 힘을 얻는 자리였다. 하나된 동료애로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물을 지켜나가는 제주지역협력단의 앞날이 더욱 빛나길 기대한다.



Mini-Interview



심과학 단장

지역의 특성상 유수율 제고가 쉽지 않은 과제인데, 그럼에도 좋은 성과를 위해 달려가는 직원들이 있어서 든든한 마음입니다. 제주지역사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모두 여러분들 덕분이죠. 앞으로 더욱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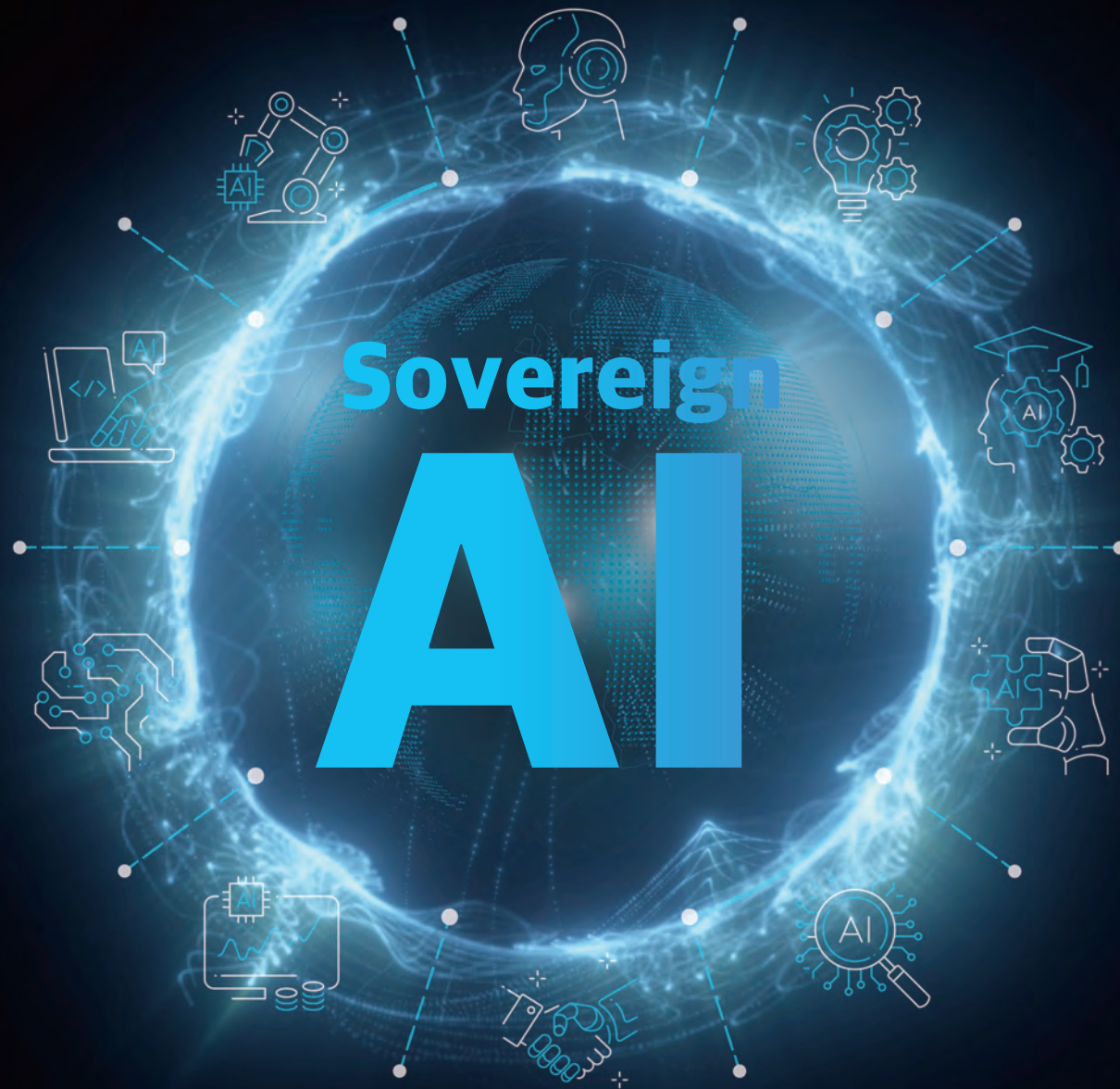


서효정 대리

새벽마다 단체 메신저방에 야간작업 결과가 올라오는데, 아침에 이를 확인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모두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을 위해 묵묵하게 애써 주시는 직원 분들이 늘 존경스러워요. 평소 말로 다 전하지 못하는 제 마음이 수타벅스로나마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부 AI 정책과 물관리 소버린 AI를 향한 도전

AI 기술은 국격 강화의 핵심 비전이다. 이에 우리나라만의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AI 생태계 주도권을 강조하는 ‘소버린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의 물 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소버린 AI 도입을 위한 현황과 한계점에 대해 짚어보고 향후 성공적인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AI로 여는 ‘진짜 성장’의 시대

정부가 ‘진짜 성장’을 새로운 브랜드로 제시하며 잠재성장을 반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러한 구상의 핵심으로 국정기획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대도약을 위한 3·3·5 비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3·3·5 비전은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진입’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리킨다. 특히 이 가운데 AI는 단순히 경제성장의 도구를 넘어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이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제사회는 AI를 둘러싼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과 주요 기업들은 인재 양성과 기술확보를 위해 AI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미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분야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동시에 민간의 역량을 결합하여 국가 차원의 AI 대전환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나아가 국격을 제고하여 세계 무대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AI 강국 실현의 첫걸음, 소버린 AI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독립적인 AI 생태계를 통한 AI 주권, 즉 ‘소버린 AI(Sovereign AI)’를 확보하는 일이다. ‘소버린 AI’란 다음 네 가지로 정의된다.

첫 번째는 데이터 주권이다. 자국의 데이터가 외부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집·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기술 주권이다. AI 모델, 학습 인프라, 알고리즘과 같은 핵심 요소를 자국이 직접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는 운영 주권으로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 체계를 확립해 공공 영역에서의 AI 활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주권이다. 국가 차원에서 통합된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운영할 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나라를 대표할 AI 모델과 독립적인 생태계가 없다면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자국 내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며 정보 역차별 현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ChatGPT’나 ‘딥시크’와 같이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개발한 모델·인프라·데이



소버린 AI의 주요 개념

소버린 AI란? 국가 또는 조직이 외부 의존 없이 AI 기술을 독립적으로 개발·운영·관리하는 능력. 이로써 국가의 기술 자립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데이터 주권

자국 데이터가 외부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집·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기술 주권

AI 모델, 학습 인프라, 알고리즘 등 핵심요소를 자국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운영 주권

공공의 AI 사용에 대한 윤리적 제어와 사회적 책임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생태계 주권

국가 차원의 통합된 AI 생태계 조성 및 거버넌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터를 기반으로 자생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진정한 의미의 AI 강국으로 설 수 있다. 다시 말해, AI 가치사슬 전반에서 자립성과 신뢰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데이터 확보, 핵심 인프라 보호, 기술 수요 창출 등의 측면에서 공공 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교통·환경·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민간과 달리 정책 결정에 따른 데이터 공개와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물·에너지·국방과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는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주도권 확보가 강조된다.

민간기업 성장의 디딤판 역할을 하는 것 또한 공공의 몫이다. 초기 시장을 만들고 기술이 실용화·고도화될 수 있도록 투자와 실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AI는 단순한 기술 경쟁력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분야이기에, 공공의 책임 있는 활용과 선도적 역할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 분야 소버린 AI의 필요성과 현황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국가의 필수 인프라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적인 안보 자산이다. 그렇기에 소버린 AI 적용을 통

한 데이터 주권과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과제이다. 실제로 물재난과 물재해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 부문이 중심이 되어 물 분야의 AI 개발과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소버린 AI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기술적·정책적 제약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제약요인으로 데이터 단절과 기술적 분절 문제가 있다. 물 분야 AI의 경우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물 관리는 수량·수질, 국가·지방·소하천, 다목적·농업·발전댐 등으로 나뉘어 전담하는 부처와 기관이 상이하다. 이 때문에 개별적인 AI 도입이 이루어질 뿐, 데이터 공유와 상호 운용성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 정책적 기반에도 구체적인 정책 이정표가 필요한 실정이다. 범 국가적인 AI 전략 논의는 활발하지만 물 분야에 특화된 AI 정책과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더불어 반복되는 극한 기후재난으로 유역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서 과거의 데이터들과 차이가 발생하여 해석과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AI 모델이 과거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과적합 문제가 겹치면서 예측 성능이 저하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댐 방류나 홍수 경보 같은 정책적 판단이나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영역에서 AI 예측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아직 어렵다. AI의 의사결정 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이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AI 생태계

정부 전략, 제도·기술적 인프라 조성

- 통일된 정책 로드맵 및 법·규제 정비
-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통합·연계 기반 마련
- AI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촉진

공공부문 수요 창출, 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서비스 AI 도입, 실증, 확산 주도
- 공공데이터 표준화·고도화, 개방 확대
- AI 성능 및 윤리·안전성 평가 검증체계 구축

학계·전문가 인재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 AI 기술 및 윤리·법제·사회적 수용성 정책 연구
- 융합형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 데이터·기술 표준화 및 국제 AI 거버넌스 주도

민간 기술 내재화·산업화, 사회적 책임

- LLM, XAI, 하이브리드 AI 등 핵심기술 내재화
- 공공데이터 활용 및 독자 AI 알고리즘 개발
- 윤리성·투명성·설명가능성 이행 및 개부 검증



물 분야 소버린 AI 가속화를 위한 과제

소버린 AI 실현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글로벌 국가 경쟁력과 디지털 주권을 좌우할 전략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공공 부문에서 정책적 기반과 데이터 통합을 주도하고, 민간과 학계가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는 등 상호 유기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공공 부문에서 국가적 AI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강화하는 등의 기반을 확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민간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다.

민간과 학계 전문가들은 독자적인 AI 기술 개발과 더불어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AI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 보안 강화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할 암호화 기술을 고도화하여 보안 생태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소버린 AI 실현의 토대가 된다.

결국 물 분야에서 소버린 AI를 가속화 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정책·데이터·기술·인재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 물관리를 구현하며, 나아가 세계무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QR코드를 스캔하여 K-water연구원의
『Water & Tech INSIGHT』 최신호를
만나보세요.

Light on

글. 편집실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꺼지지 않는 즐거움 ‘대전 0시 축제’와

열대야가 끝날 줄 모르던 8월 한가운데.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나섰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축제를 지향하는 ‘대전 0시 축제’의 현장을 담았다.



‘시원한 방울오락실’에서 함께해요

지난 8월 8일부터 16일까지, 대전 시민들의 무더운 여름밤 극 복을 돕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 0시 축제’와 함께했다. 올해 0시 축제는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대전역에서 옛 충남 도청에 이르는 1k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시민들이 각 구역마다 대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목적교 부근에서 ‘시원한 방울오락실’이라는 간판을 내건 전용 부스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홍보부스는 공사 미션 및 비전을 홍보하는 전시존, 낚시 뽐기·캡슐 뽐기로 구성된 이색 체험 프로그램존인 ‘방울이랑 뽐Go-뽐Go’, 마스코트 방울이를 활용한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민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귀여운 방울이 기념품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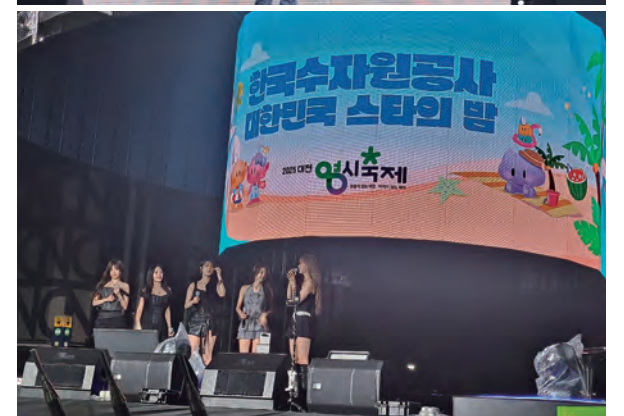


함께한 한국수자원공사

‘대한민국 스타의 밤’으로 초대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8월 15일 중앙로역 네거리 특설무대에서 ‘대한민국 스타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와의 상생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가수 소향, SG워너비 김진호, 뮤지컬 배우 민우혁, 로커 서문탁, 걸그룹 프로미스나인 등이 초청되어 다채롭고 감동적인 무대를 펼쳤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1974년 본사를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 대청댐 건설·운영과 대덕연구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행사 참여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대전과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Newsroom

2025 September Vol. 690



01

한강변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무역센터 수열에너지 공급 사업 착공

지난 7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센터 수열에너지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무역센터 수열에너지사업은 한강 수온을 활용한 청정 물에너지로 한강 주변 중심 상업지구를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본격 전환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단일 건물 기준 국내 최대규모인 7,000RT의 수열에너지를 트레이드타워, 코엑스, 아셈타워에 공급하게 된다. 이는 에어컨 약 7,000대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년 국내 상업시설 중 최초로 롯데월드타워에 3,000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적용하고, 32.6%의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를 실증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강남·송파구 일대에 수열에너지 고속도로 조성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현대차 GBC,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잠실종합운동장 등 인근 대형건물로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윤석대 사장은 "무역센터 사업을 기반으로 수열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며, 정부와 함께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를 조성해 가겠다." 라고 말했다.



02

마이크로소프트와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국내 첫 공식 물 복원 파트너로 선정되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본격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8월,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사업으로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일대 소양강댐 상류 지역에 인공습지를 조성함으로써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부터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습지 조성 및 유지 비용을 부담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습지 설계 및 사업 실행을 전담한다. 습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유입되는 비점오염원(부유물질, 질소, 인 등) 약 30% 저감, 연간 약 34만 톤의 물 복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기업과 공공기관이 일대일로 협력해 물 복원을 실천하는 국내 첫 사례이자, ESG 기반 민관 공동 생태계 조성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03 안전 최우선 경영 실천을 위한 전사 소통회의 개최



지난 8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전 본사에서 ‘전사 안전활동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대 사장을 비롯해 전 임원, 본부장, 주요 부서장 등 38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사 재해현황과 주요 안전활동을 공유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최근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잦은 기상변화에 따른 현장의 안전관리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 전반에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대 사장은 “극한기후로 우리의 안전환경은 과거와 달라졌으며, 공사는 안전의 기준을 새롭게 높여가고 있다.”라며, “안전은 제도로 시작하지만, 자율로 완성되는 만큼 전 임직원의 참여와 실천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04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 선정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유럽연합(EU)의 대표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연계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 ‘탄소중립 분야’ 과제를 수행한다. 호라이즌 유럽은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스마트 도시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과 전 세계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공동연구 플랫폼이다.

이번 과제는 ‘건축 환경에서의 청정에너지 통합’으로, 핵심은 건물을 단순히 전기를 소비하는 공간을 넘어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주변과 공유하는 ‘에너지 자립형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 사전 제안서를 제출한 뒤, 유럽연합 사무국의 승인 등을 거쳐 올해 7월 최종 선정됐다. 과제는 2026년부터 3년간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AI) 기반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플랫폼 개발과 실증을 주도할 예정이다.

05 일본 나가이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업무협약 체결



지난 8월 6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일본 나가이시, NTT 동일본주식회사, NTT 이드론 테크놀로지,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디지털 트윈 및 드론을 활용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본 야마가타현 남부에 위치한 농업 도시 나가이는 모가미강과 그 지류가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어, 지형 특성상 홍수 위험이 큰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초격차 물관리 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나가이시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홍수기 댐 운영 등 물관리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나리오 기반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제공해,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을 가능케 한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선진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나아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해법이 되도록 기술 확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06 AI 기반 미래 물기술·기후 위기 대응력 강화



한국수자원공사는 점차 심화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혁신 물기술 발굴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8월 7일 국내 산학연기관들과 ‘개방형 혁신 연구개발 과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17개 기관들은 지난 4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물관리 디지털 트윈 기술, 스마트관망 관리,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 해수담수화 등 9가지 과제에 대한 ‘개방형 혁신 연구개발 과제 참여형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안전 강화, 물 기술 혁신을 목표로 산·학·연 협업을 통한 실질적 연구성과가 AI 디지털 물관리 대전환의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AI 3대 강국 실현 기조에 발맞추어 앞으로 4년간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개방형 혁신 연구에 투입하여 AI와 디지털 트윈 등 미래 물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최신 기술 연구에 속도를 더 할 전망이다.

고요와 치유 물방울의 미학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김창열 작가를 표현하는 단어는 ‘물방울’이다.
그는 투명한 물방울 속에 담긴 빛과 그림자를 통해
전쟁의 상흔부터 삶의 본질까지를 꿰뚫었다.
존재에 대한 끝없는 질문이자 예술의 언어였던
그의 물방울 세계는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에서
이어지고 있다.

점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감도라 할까. 기적으로 느껴졌다.

하나의 점이면서도 그 질감은

어떤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새로움의 발견이었다.

KIM
TSCHANG-YEUL
제주도립 김창열 미술관
ART MUSEUM·JEJU

물방울은 어디에서 왔는가

평안남도 맹산 출생 김창열 작가는 해방 즈음 월남해 서울대학교에서 미술 공부를 이어갔다. 그러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학업을 멈추게 되었는데, 이 시기 전쟁과 분단, 해방 등 전쟁의 격동은 그의 예술 전반을 관통하는 토대가 됐다.

김창열 작가는 1950년대 ‘현대미술가협회’를 창립하여 앵포르멜(비정형 미술) 운동을 주도했고, 서구 현대미술의 어법을 한국적 정서와 접목하는데 앞장섰다. 이후 1965년 뉴욕에서의 활동을 거쳐 1969년 파리에 정착하기까지 자신만의 예술에 달기 위한 실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물방울 회화의 여정이 시작된 건 1970년대 초. 작업을 하던 중 우연히 튜브 물방울이 캔버스에 맺힌 것을 발견했는데, 그는 “그것은 하나의 점이면서도 그 질감은 어떤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김창열의 세계를 걷다

는 새로움의 발견이었다. 점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감도라 할 까. 기적으로 느껴졌다.”라고 회상했다. 물방울 작품이 세상에 처음 공개된 건 1972년 프랑스에서 열린 살롱전 ‘살롱 드 메’에 서였으며, 이후 작가는 물방울을 평생의 화두로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영롱한 물방울 묘사는 단지 영롱함을 표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신문지나 도덕경, 천자문의 글씨 위에 물방울을 결합하여 글자를 확대하거나 가리거나 지워내는 <회귀> 시리즈로 사유를 확장해갔다.

김창열 작가가 이토록 물방울에 천착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평안남도 맹산이 고향인 그에게 샘과 물은 고향에 대한 추억을 담고 있는 기억의 매체이자 영혼을 정화하는 매개였다. 20살 어린 나이에 ‘맹수가 물어뜯는 고통’ 같았던 전쟁을 겪은 그에게 작품 활동은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함과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중 김창열 작가는 1년 10개월을 제주도에서 피난생활을 했다. 제주도는 작가에게 마음의 안식처와도 같았다. 그 인연으로 작가는 자신의 작품 220여 점을 제주도에 기증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생긴 미술관이 바로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다.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어귀의 주차장에서부터 호젓한 돌담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위치해있다.



하늘에서 미술관을 바라보면 중정을 기준으로 여덟 개의 건물 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추구한 회귀의 철학을 표현한 것이다.

제1전시실에서는 김창열 작가의 일대기와 더불어 물방울을 매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시로 복원한 그의 인터뷰를 통해 작가가 걸어 온 길과 그 속에서 구축해 온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제2전시실로 향하는 길, 어두컴컴한 복도의 끝의 설치 미술 <물방울>은 안과 밖의 미세한 빛을 투영하여 홀로 영롱하게 빛난다. 다시 모퉁이를 돌아 향한 2, 3전시실에서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작가의 그리움이 담긴 <회귀> 시리즈가 관람객을 맞는다. 마지막 전시실인 영상관에 들어서면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물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모든 관람을 마치고 나가면 건물 가운데 빛의 중정이 펼쳐진다. 연못 가운데 놓인 커다란 물방울 세 개는 설치미술 <삼인>이며, 십 분마다 가동되는 분수는 무지개를 그려내며 동화 같은 풍경을 완성한다. 물방울이 만들어내는 울림이다.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은 단순히 그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물방울에 담긴 사유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물방울 속에 담긴 작가의 시선을 마주할 수 있다.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 A**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83-5
- H** 09:00~18:00, 월요일 휴관(하절기 7~9월 09:00~19:00)
- T** 064-710-4150

식단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신유경 매일경제 기자

최근에 제게 생긴 큰 변화가 있습니다. 주말 식단을 바꾼 것입니다. 원래 주말 아침 느낌이 일어나는 저에게 단골 메뉴는 '라면'이었습니다. 조리가 간단한 데다 금요일 밤 술을 마시고 생긴 숙취를 해소하기도 제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면 아니면 배달 음식으로 토요일 하루의 시작을 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부터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을 대체할 제 주식은 '낫또'가 됐습니다. 일본 만화 속에서만 보던, 끈적끈적한 실이 나오던 그 낫또 말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밥 위에 낫또를 얹고 아보카도와 삶은 달걀을 썰어 넣어 함께 먹어봤습니다. 분명 맛있다고 할 수 있는 맛은 아니지만 뭔가 건강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째 주말에 이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단을 저속노화식단이라고 부른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제게 늙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식단을 선택한 배경은 하나였습니다. 주중에 반복되는 건강하지 못한 저녁 자리 때문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일주일에 최소 세 번의 저녁 자리를 갖습니다. 메뉴는 누구를 만나도 거의 비슷합니다. 삼겹살, 양꼬치, 혹은 기름진 중국 음식이 단골 메뉴입니다. 바깥 음식을 정말 좋아하던 저도 이런 생활을 몇 년째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우면서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고민하다가 낫또를 택했습니다.

낫또의 효능을 살펴보니 왜 저속노화식단이라고 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낫또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은 혈전성 질환을 예방한다고 하고요.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도 개선해준다고 합니다. 주중에 '고기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저를 낫또가 살려준 셈입니다.

저속노화식단의 강점은 단순히 건강하다는 데에만 있지 않습

니다. 저속노화식단은 저뿐만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낫또와 같은 콩류 중심 식단은 고기와 가공식품 섭취를 막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육류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소나 돼지를 사육해야 합니다. 이 사육 과정에서 소는 다량의 메탄을 배출하게 됩니다. 메탄은 탄소보다 훨씬 더 큰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이 지난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물성 식단을 준수하는 상위 10%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9%, 비료 사용량을 21%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국 국립학술원(PNAS)에서도 건강에 좋은 식품일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낮다는 상관관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속노화식단은 토지 황폐화를 막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소와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토지가 필요하고, 과도한 방목은 토양의 물리적 훼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육류의 경우 이같은 토지 이용 대비 식량 공급 효율도 낮습니다. 저속노화식단이 점차 확산돼 육류 소비가 줄어들면 토지 훼손이 줄어들 뿐 아니라, 같은 영양 공급을 위해 필요한 토지 면적 자체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저속노화식단이라고 부르는 식단은 유엔의 '지속 가능한 식단'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유엔은 지속 가능한 식단 원칙으로 최소 가공식품 위주, 콩류와 채소 위주의 식단, 붉은고기 최소화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몇 달 전 서점을 서성이다 산 책의 제목이 떠오릅니다.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우리가 날씨가』 부제는 '아침 식사로 지구 구하기'입니다. 저속노화식단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책 제목대로 정말 아침 식사로 지구를 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Water Tales

글: 조수민 사진: 서울역사아카이브

대중목욕탕 역할의 변천사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형태의 대중목욕탕이 들어선 건 1900년대 초의 일이다. 습한 기후에 목욕을 생활화했던 일본인들이 우리 땅에 정착하면서 다방, 이발소 등을 겸한 목욕집들이 개업하기 시작한 것. 그러다 1924년 평양에서 본격적인 ‘대중목욕탕’이 문을 열었다. 이는 부(府)에서 직접 관리를 두어 사용료를 받는 일종의 공영 목욕탕이었다. 한 해 뒤 1925년 서울에도 공중목욕탕이 생겼는데, 남녀 구별이 없던 대중목욕탕의 등장에 한국인들은 큰 거부감을 보였다.

그럼에도 목욕탕이 확산된 이유는 결국 ‘위생’과 ‘청결’ 때문이었다. 농어촌 지역에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목욕탕 건립과 이용이 장려되었고, 대도시 위주로 상하수도 기반이 갖춰지며 1960년대 146곳이던 서울의 공중목욕탕이 1985년 1,768곳으로 급증할 만큼 목욕탕사업

이 붐을 이뤘다. 일요일 아침이면 가족끼리 목욕탕을 찾는 ‘목욕탕의 시대’가 열린 것도 이 즈음부터다. 목욕탕의 수가 많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지며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최근 목욕에 놀이, 휴식의 기능이 더해진 찜질방, 스파 등이 등장하며 단순 목욕만 하는 ‘목욕탕’의 인기는 사그라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최근 대중목욕탕이 ‘K-컬처’의 붐을 타고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현실 고증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대중목욕탕 씬이 등장하며 많은 외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 이에 한국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이 대중목욕탕을 찾거나 세션 체험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오랜 세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해 온 목욕은 이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시대 속 목욕의 기억

‘목욕’이라는 의식

신성한 의식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정비한다. 이 같은 ‘목욕재계’의 역사는 신라시대에서부터 내려온다. 불교 국가였던 신라에서는 제사와 같은 의식을 행하기 전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한 계율이었다. 당시 불교 경전에는 하루에 몇 번씩 목욕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승려들이 사용하던 목욕탕이 우리나라 공중목욕탕의 시초셈이다. 고려시대에 목욕은 질병 예방과 치료의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하여 남녀가 함께 목욕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고려인들이 하루에 서너 차례 목욕을 했고 개성의 큰 내에서 남녀가 한데 어울려 목욕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몸이 찰싹뽀뽀한 날이면 뜨끈한 목욕탕이 간절하게 생각난다. 오늘날 목욕탕은 ‘청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과거 우리 선조들에게도 목욕이란 마음의 묵은 때가까지 씻어내는 행위였다. 우리나라 역사 속 목욕의 의미를 짚어본다.

하지만 유교사회였던 조선에서는 타인에게 벗은 몸을 보여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일로 여겼다. 심지어는 집에서 홀로 목욕을 할 때에도 옷을 다 입은 채로 ‘부분 목욕’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다 삼짇날(3월 3일), 단오(5월 5일) 같은 날에 전신욕을 즐겼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이 그린 <단오풍경>에 단옷날 냇가에서 목욕을 즐기는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목욕이 병을 낫게 한다고 믿었던 이 시기에는 왕과 귀족들 사이에서 ‘물이 좋은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조선시대 『경국대전』과 『대전회통』에는 온천을 새로 발견한 사람에게 3계급 특진을, 직위가 없는 사람은 관리 7등급에 임명하는 보상을 내렸다고 한다. 이때 성행한 온천이 바로 동래온천과 온양온천 등이다.



#방울이의 알고리즘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반아웃 온 방울이를 위한
‘댐’플스테이

충주댐 인근 석종사에서
디지털디톡스를 하다!

#댐플스테이 #디지털디톡스
#방울이의 힐링여행



블로그

에너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에너지
테마 여행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양양에너지광
#당진에너지캠퍼스



X(트위터)

테토 VS 에겐?
방울이는 외젠



#방울이의 성향 #외젠



페이스북

K-미식여행
- 경주편



#경주특산물 #육회비빔밥 #과와자



인스타그램

정신이 번쩍 드는
처방전 효과



#직장인의처방전 #카드내역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9월호 이벤트 안내

Vol.690

EVENT 1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후기를 들려 주세요

9월호 사보 또는 웹진을 읽은 후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이벤트 경품 메가박스 2인 패키지(5명)

접수 마감일 9월 20일

선물 발송일 9월 30일



참여하기

EVENT 2



물 없이도 일주일은 버틸 수 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탐험가. 먹을 건 좀 있지만 물통이 바닥난 상태.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지만 머리 위 띄약별과 발이 폭폭 빠지는 모래 때문에
도저히 속도가 나지 않는다.

탐험가는 물 없이 일주일 버틸 수 있다? 없다?

STEP 1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후 채널 추가

STEP 2 1:1채팅방 클릭

STEP 3 정답 및 의견
(정답 및 의견/이름/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벤트 경품 스타벅스 간편한 한끼 세트(커피+베이글)

접수 마감일 9월 25일

선물 발송일 9월 30일



참여하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

8월호 이벤트 당첨자 안내

사보에 대한 소중한 의견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조○주(5962)

임성균 씨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네요. 악기 수리의 일이 임성균 씨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어서 다행이에요. 저 또한 예고·음대를 나왔는데 악기를 잡고 있지 않거든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고○은(3039)

나주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흥미가 생기네요. 특히 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그 맛이 나는 쫄면까지 있다니 여행을 가서 '배'에 관련된 것들만 보고 먹고 와도 하루가 금방갈 것 같아서 기대되네요.



백○년(7526)

오피니언 기사를 읽어 보니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결국 우리 자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결국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두 응원합니다



임○희(3070)

AI로 인한 물 관리 생태계 변화에 대한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AI가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혁신과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힘을 실감하게 됩니다.



최○호(9416)

초보 농사꾼으로서 변화무쌍한 날씨에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많아요. 농사가 물에 민감하다는 것을 직접 겪어보며 알아가는 중이죠. 10년당 강수 변화량을 그림으로 보여 주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YES or NO 이벤트

이벤트 경품 커피+베이글 기프티콘 10명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언다? 정답은 YES

뜨거운 물은 찬물보다 증발량이 많아 전체 부피가 더 빨리 줄어든다. 따라서 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어 뜨거운 물이 어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는 '엠펜바 현상'이라고도 한다.

곽○은(0123)	김○석(6809)	이○현(1275)	임○진(5230)
김○원(1706)	서○훈(8374)	전○명(8386)	
김○만(7696)	이○근(6472)	한○정(6927)	

#방울이 옷 입히기 이벤트

이벤트 경품 업사이클링 키트 5명

김○선(0725)
한○미(3236)
최○희(4208)
황○원(6933)
허○(5628)



※9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00으로 전화주세요.

방울이 옷 입히기

여러분의 취향대로 방울이를 꾸며보세요!

예술가가 되고 싶은 방울이의 꿈을 찾아주세요.
멋있게 변신한 방울이 모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업사이클링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QR코드로 제출
접수 마감 9월 20일
선물 발송 9월 30일

응모하기

경품

업사이클링 키트
(5명)



artist



singer



dancer





웹진 바로가기

방울이 옷 입히기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 **법정기념일**

모두가 함께 **우리의 개인정보를 지켜가는 날**



k-water 방울이가 알려주는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수칙



-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유추하지 못하도록 설정하기
-  개인정보 동의 시 동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하기
-  SNS, 게시물 업로드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하지 않기
-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등 계정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택배송장, 신용카드 영수증은 반드시 찢어서 버리기

 K water



K-water는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을 참고해주세요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